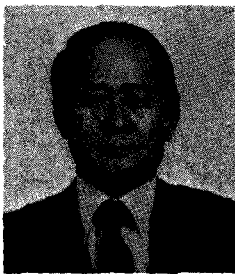


우리나라 最初 原子爐의 歷史的 意義

“우리의 자랑스러운
原子力文化財를 爲하여”



黃 慶 灝

(科學技術處 原子力局長)

研究所와 學園 등 여러 과학기관들이 공존함으로써 서로의 知的인 교류를 촉진하고 동시에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추진된 大德研究團地는 이제 강한 리더·십에 의하여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미래의 빛나는 발전을 기약하는 이러한 趣旨에 따라 26年間の 歷史를 가진 에너지研究所도 드디어 금년말까지는 대덕연구단지로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원래 大義를 위해서 小利는 미련없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원자력 사업분야에 종사해온 나로서는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어찌할 수 없으며, 이것을 다시 곰곰히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감상적인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에너지研究所의 所有數地와 建物은 이미 韓國電力公社에 매각되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基의 研究用原子爐는 사용할 수 있는 동안 그대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불필요한 폐기물로 처분될 운명에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견대로 이 두 연구용원자로가 그 수명과 더불어 처분되어도 좋은 것일까?

그와 같이 또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인 意見을 여기에 솔직히 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나의 의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기대하고 싶은 心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原子爐인 TRIGA-MARK II 研究用原子爐는 1959년 7월 14일에 착공하여 1962

년 3월 19일에 임계에 도달하였고, 同年 3월 30일에 정식가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1959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信號라고 한다면, 1962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시대의 돌입」을 宣言한 해라 할 수 있다.

이 최초의 연구용원자로는 1958년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쌍무협정」에 따라 미국정부로부터 \$350,000의 원조를 받아 미국GA社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1959년 발족한 原子力院傘下 原子力研究所(지금의 에너지연구소)는 이 원자로를 중심으로 많은 科學者와 과학의 지망생들에게 그 학구적 의욕을 크게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침체된 우리 과학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준 동시에 첨단과학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북돋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에 원자력 연구소는 우리나라 첨단과학연구의 母體였으며, 그 연구용원자로는 바로 그것을 대표한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실제 원자력원은 원자력과학자의 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國費로 많은 해외파견생 혹은 장학생을 미국과 유럽에 보냈으며, 1961년 말까지 그 유학생의 수는 10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 대부분은 博士學位를 받고 귀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과학분야에 있어서 미국 및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대부분 이 원자력유학생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분들이 다시 원자력연구소에 돌아와 연구에 몰두하였거나 혹은 대학이나 다른 연구소에 종사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연구와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 이렇게 성장하고 증원된 이들이 1962년부터 추진된 經濟開發 5年計劃에 있어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한 母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 유학생들과 더불어 이들에게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주요한 저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공업국으로 발전하고 다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하려는 國力이 바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추진력이된 과학기술 저력의 원천은 따지고 올라가면 원자력연구소의 설립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인 TRIGA-MARKII 研究用原子爐의 도입설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의 첫 연구용원자로는 단순한 연구시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시대의 出發點」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진공업국으로 도약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첨단기술의 起點」으로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가 별로 큰 뜻이 없는 의견으로 생각될런지 모르나, 백년후 혹은 이백년후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첫 연구용원자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그와 더불어 그 초창기에 각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연구기기와 시설들도 우리의 매우 중요한 科學文化財가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장래를 예견하고 현재의 연구용원자로의 위치와 그 위치에 있는 두 연구용원자로 그리고 초창기의 모든 연구기기와 시설들을 우리의 중요한 과학문화재로 연구보존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진들의 교육기관으로서 다시 건물 및 시설과 주위환경을 잘 가꾸어 우리의 훌륭한하고도 자랑스러운 원자력 유산으로 남길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은 바이다.